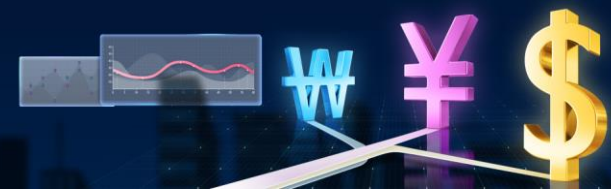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 (2022.12.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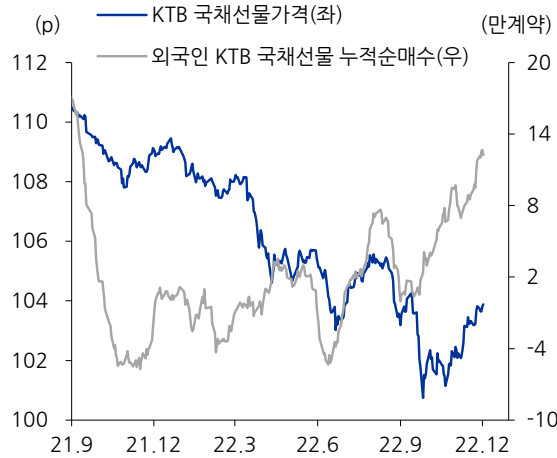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12/2일	1D	1W	YTD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616%	-3.4	-2.8	181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583%	-8.0	-4.0	133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-3.3	1.3	-2.1	45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3.88	6.0	6.0	-523
10년 국채 선물(LKTb)	111.85	70.0	27.0	-1243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88%	6.5	-18.7	356.2
	미국채 10년물	3.493%	-1.7	-19.3	198.1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-79.6	-71.4	-79.0	78.6
	독일국채 10년물	1.849%	3.8	-12.1	203.0
	호주국채 10년물	3.389%	-9.2	-18.7	171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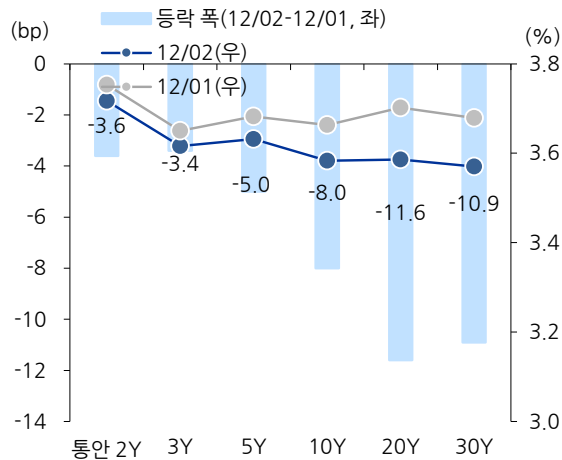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볼 플래트닝 마감. 연준 속도조절론 여파와 한국 물가 둔화의 영향.
- 개장 전 공개된 한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비 0.1% 하락했고 전년대비 5.0% 상승했음. 이미 11월 금통위에서 11~12월 물가 둔화를 언급한 바 있지만, 이는 전월 5.7%에 비해 대폭 하락한 수치로 물가 피크 아웃을 보여주며 시장의 속도조절 기대를 더욱 확대시켰음.
- 연준 12월 이후 속도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되면서 전구간 금리 하락을 이끌었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커브 플래트닝 마감. 단기구간 금리 상승하며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더욱 확대.
- 미국 주요 지표가 모두 발표. 10월 PCE 물가 상승률이 완화됐지만 이미 CPI 이후 선반영된 폭이 컸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은 고용지표에 좀 더 기울어졌음. 미국 11월 비농업 신규고용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며 금리는 단기구간 위주로 상승했으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일부 반납.
- 금주 중국, 미국, 유로존 등 PMI 지표 발표될 예정이며 화요일 호주 RBA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음.

자료 출처: 연함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거던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